

첫서원



수도 성소의 아름다움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리라는 준비된 마음과 충실성에 뿌리를 둡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는 2024년 5월 11일에 서원을 발한 우리 다섯 명의 주제였습니다. 이날은 오랫동안 상상해온 꿈과 목표가 드러나고 탄자니아 은지로의 국제 수련소와 성령 총대리구에 경축할 이유를 부여해 준 날이었습니다.

은지로 수녀회 성당의 미사성제는 노틀담 양성소 성가대의 듣기 좋은 천사의 목소리로 빛났습니다. 각각의 생동감있는 참여와 전례 안무의 정확성은 이날의 장엄함에 훨씬 많은 것을 더해 주었습니다. 총대리구장 메리 크리스틴 수녀의 질의에 대한 다섯 수녀들의 확신에 찬 응답은 하느님의 섭리적 돌보심에 대한 신뢰라는 현실과 하느님의 좋으심에 대한 용기 있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총대리구의 다양한 공동체에서 온 노틀담 수녀들의 현존은 이 행사의 활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서원한 수녀들이 그날 저녁 파견 기도 예식에서 즉각적이고 기꺼우며 기쁘게 소임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사명안에서의 사도적 성격과 하느님 백성에게 우리를 파견할 때 교회와의 친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매우 특별하고 복된 행사였습니다!

메리 페이트 수녀, NND